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: 2013. 06. 11(16:30~18:30)
2. 장소: KIEP 9층 회의실
3. 발표자: 문기봉(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부 팀장)
4. 참석자

— 원내(9인)

이장규(신흥지역연구센터, 소장)
김태운(동남아팀, 팀장)
강대창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오윤아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정재완(동남아팀, 전문연구원)
이재호(동남아팀, 전문연구원)
신민금(동남아팀, 연구원)
박나리(동남아팀, 연구원)
이성희(전략연구팀, 연구원)

— 원외(1인)
문상원(한국국제협력단)

5. 제목: ASEAN의 기회와 한-ASEAN 비즈니스 협력 방안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☐ 아세안에 대표부를 설치한 역외국가로는 미국, 일본, 중국, 한국 4 개국이 있음.

☐ 브루나이는 최근 서비스업 부문을 발전시키고자 할랄인증사업을 본

격적으로 추진 중이며, 최근 이슈는 할랄화장품임.

□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임.

- 통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설비, 부품 등이 한국에서 조달되어 야하기 때문에 수출도 더불어 증가함.

□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건설수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- 2012년 기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건설수주액은 약 110억 달러로, 전체의 17%를 차지함.
- 1965년에 수주한 태국의 빠따니-나라티왓 고속도로는 한국기업의 최초 해외 건설수주 사례임.

□ 포스트 브릭스(Post BRICs) 시장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음.

- 글로벌 기업들이 아세안을 주목하는 배경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 모색, 소비시장 및 인프라 시장의 급성장,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, 후발 가입국(CLMV)의 개혁 및 개방 가속화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.

□ 아세안은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.

-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는 아세안의 경쟁력이 중국을 추월하고 있으며, 일본 섬유업체들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추세임.
-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에서도 아세안의 경쟁력이 높아져 일본기업인 도요타, 닛산, 혼다는 ‘중국+1’ 전략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

생산역량을 확충한 바 있음.

- 최근 중산층이 확대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안이 소비 시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음.
 - 2012년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아세안이 53.2%로, 브릭스(44.6%)보다 큼.
 - 아세안의 무슬림들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은 18억 이슬람 시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.
 - 일례로 맥도날드는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에서 테스트 후 영국 및 호주에 할랄점포를 개설한 바 있음.
-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추진중임.
- 일본계 다국적기업은 1960년대부터 아세안에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.
 - 아세안은 일본 자동차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AICO (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)를 시행하여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역내에 수출할 시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음.
 - 혼다, 도요타, 미쓰비시 자동차 등이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.
 - 도요타는 현지 파트너사에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 개발, 생산, 판매와 관련된 포괄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음.
- 최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성공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상호보완적인 파트너 선정, 스피드 경영, 파트너사의 우산 활용, 현지 문화와 업무관행 존중 등을 들 수 있음.
- 미얀마의 개혁·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섬유·봉제업을 중심으로 한국기

업의 미얀마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임.

2) 토론 내용

- 개혁·개방 이후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크게 늘었으나, 미얀마의 경우 도로, 전력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.
 - 예를 들어 미얀마는 농업이 발달하였으나 물류비용이 높아 산지 이외에는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.
- 한국 정부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많은 ODA를 지원하고 있는데 ODA를 통한 기술협력은 한국기업들의 투자 촉매가 될 수 있음.
- 동남아 국가 중 특히 인도네시아는 2억 이상의 많은 인구,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을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현지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음.
 - 한국기업 롯데마트는 2008년 10월 인도네시아 내 ‘마크로’ 19개점을 인수하여 국내 유통업체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 있음.
- ODA 관련하여 현 정부는 수원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ODA를 추구함.
 - 동남아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기초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- 동남아 내에서는 일본차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는데 이는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1960년대부터 태국,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에 기인함.
 -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필리핀에서 수동 미션, 클러치 케이스 등을,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동 변속기, 엔진밸브 등을 생산한 후 태국으로

수출하여 조립 과정을 거쳐 태국 현지시장에 판매하거나 아세안 역내·외로 수출하고 있음.

- 한상기업 코라오홀딩스는 자동차 조립·판매사업을 시작으로 라오스에 진출하여 현재는 바이오에너지, 건설, 금융, 레저 등 여러 부문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음.
-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국가 및 기구는 총 11개국 및 기구로,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미국, 러시아, 캐나다, 유럽 연합, UNDP임.
-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감소하는 등 아세안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음.
 - 아세안의 외환보유고는 2000년 말 기준 약 1,900억 달러에서 2012년 9월에 약 7,6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.
 - 아세안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2005년 47%에서 2011년 36%로 감소하였음.
- 최근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국의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현지진출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 - 그러나 동남아 신흥국의 임금보다 중국의 임금이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서 동남아의 매력은 유지될 것임.
- 아세안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, 향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.
 - 아세안 경제는 2011년에 4.6%, 2012년에 5.3% 성장한 바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13년에는 5.5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

으로 전망된 바 있음.

- 동남아 국가 중 동티모르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향후 가입 여부도 불투명함.
 -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년 수백 건의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하여야 하는데 동티모르가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임.
- 아세안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제조업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.
-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섬유·봉제업 부문에 제조업체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- 젊은 소비층이 아세안 소비시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.
 - 아세안의 Y세대(15~29세)는 약 1.6억 명으로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27%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Y세대 비중보다 큼.
 - 페이스북 사용인구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약 5천만 명으로 세계 4위를, 필리핀이 약 3천만 명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음.
- 아세안 회원국 중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참여하는 국가는 싱가포르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 4개국임.